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환영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릴루엣 원주민 선교

내일 월요일(8/5)부터 수요일(8/7)일까지 진행되는 릴루엣 원주민 단기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3. 8월 예배안내

- 새벽기도회 : 8월 6일(화) - 8월 17일(토)까지 쉽니다.
- 수요기도회 : 8월 7일(수), 14일(수), 21일(수) 3주 동안 쉽니다.

▶교우소식

- 다과 : 최자은집사 가정, 도유경집사 가정 / 다음 주 : 한주연집사 가정
- 이사 : 윤은경집사 가정 (3146 Sechelt Dr Coquitlam)
- 출타(한국방문) : 김도희집사 가정 / 김경이집사 가정 / 도유경집사 가정

▶8월 목회일정

- 8/4(주일) 릴루엣 원주민 선교팀 파송예배
- 8/25(주일) 성찬예배
- 8/26(월)-28(수) 새 학년 삼일 저녁기도회

▶2019년 여름 사역일정

- 8/5(월)-7(수) 릴루엣 원주민 단기선교
- 8/23(금)-25(주일) Youth 다니엘목장 연합수련회 / 나나이모

■ 예배위원안내

날짜	1부	기도	2부	현금위원	안내
8월 04일	송지은		장혜성	재정부	
8월 11일	최슬비		천길영	장혜성	8월 박미란

■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 최자은집사(손준용)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소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담임목사	정 병 완
부목사(유스)	김 상 훈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전도사(찬양)	박 청 아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주 일 예배

제 7권 31호

2019.8. 4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2시
신양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찬송 (Praise)	찬송가 292장	경배와 찬양
회중기도 (Prayer)	송지은자매	장혜성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특송 (Special Praise)		릴루엣 원주민 선교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세대 축복기도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봉헌 (Offering)		찬송가 292장
말씀선포 (Sermon)		사도행전 15:36-41(신약 214쪽)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정병완목사
*파송찬양 (Closing so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도 (Benediction)		정병완목사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에스겔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원주민 선교 기도회”

인도: 담당 교역자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s(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당 교역자



나무십자가한인교회
WOODEN CROSS KOREAN CHURCH

Tel. 778.871.7740 / www.vanwckc.com

교회 : 1460 LANSDOWNE DR. COQ

설민한 물가 : 2288 ELGIN AVE PO. COR

사도행전 15:36-41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와 율법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바리새파 출신 교회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입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교회는 할례와 율법준수가 구원의 필수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할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적어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3.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안정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이방인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형편을 살피고 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제안했고 바나바도 좋게 여겨 2차 선교 여행이 준비됩니다.
4.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37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 밤플리아의 버가에서 갑자기 고향으로 되돌아 가버린 마가를(행 13:13)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38절).
5.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서로 갈라져 선교사역을 이어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고(39절),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야 지역으로 가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40-41절). 두 사람의 갈등의 모습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6. 한편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다른 목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7.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두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지만 이후 마가 요한의 변화된 모습으로 볼 때 바나바의 선택이 바람직했다고 평가됩니다.
8.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를 격려와 지지와 칭찬으로 양육을 했고 그 결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9. 사도 바울은 이후 마가가 자신의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딤후 4:1).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벧전 5:13)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한 베드로를 대신해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대필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무엇보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10.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킨 바나바의 모습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8월 5일(월)-7일(수)까지 진행되는 릴루엣 원주민 밴드 Kids Camp가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게 하시며, 선교 팀원 모두가 건강하게 하소서.

화요일 - 19명의 원주민 아이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헌신하게 하소서.

수요일 - 19명의 선교 팀과 세분의 선교사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체력과 성령이 충만한 영성이 유지되게 하소서.

목요일 - 로보틱스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미용 봉사 및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각각의 팀원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 이번 선교를 통해 릴루엣 밴드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머지않아 성경학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이어 가게 하소서.

토요일 -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소서.